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1호 [부제 제26125호] 주제107(2018)년 9월 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5호

주제107(2018)년 9월 8일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령한다.

#### △ 육군중장

리문철 리영철 박용웅  
차동일 김락준

#### △ 해군소장

김덕삼 진철수 남천학  
배은철

#### △ 육군소장

김성기 주상래 리재성  
리길삼 백명철 김동필  
길성용 하경준 신동찬

김철희 리정철 한용수  
리명진 안준호 리영남  
박영일 주명철 최봉섭  
김영선 계경철 정광철  
강영철 류현복 장경학  
전명국 김은광 김명선  
최영열 동금옥 문인철

#### △ 내무군소장

유학철 박광웅 조승섭  
서창학 김순봉 리창철  
리길만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일본 도끼

## 축 하 문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승리의 존엄과 긍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마음을 담아 공화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기적과 번영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속에는 머나먼 이역땅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총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스며있습니다.

지난 기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산아인 총련을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애국조직으로 철석같이 다지었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결렬히 옹호하였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며 위대한 강국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조국인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장그리 바치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한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친 총련의 1세대들을 비롯한 유명무명의 애국적동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렬들의 위불 이어 사회주의조국에 운명의 피를 흘리고 그 어떤 명이나 대가를 비람이 없이 순결한 항심과 의리로 어머니조국을 떠받들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을 뜻깊이 걸어가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최상의 지위에 올라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역사적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70성상에 애국총정의 기념비를 높이 세운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총련 제24차전체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 총대진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답게 주체의 사상체제, 령도체제를 확고히 세우고 5대교양사업을 전방적으로 벌려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한번 택한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세,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반석같이 다지며 모든 일군들이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감으로써 동포들모두가 총련조직을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 정든 집으로 귀환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부흥속에 해외동포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국땅

에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하며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머니조국의 대지위에 애국총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 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과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승화시켜나가며 끓어오른 민족의 열혈을 이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주체와 애국으로 사랑높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의 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우리 공화국의 어제와 오늘, 광명한 내일과 더불어 조국생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송고한 전통, 영광의 바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애국애족의 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제107(2018)년 9월 8일

평양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축하 드리 는 문

오늘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일흔육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군 일흔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를 경축하는 혁명적 대경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며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는 역사적기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일흔번제의 년문을 새기는 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통성변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이며 넉넉이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국가명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위업을 총직하게 계승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시었습니다.

동서고금의 국가건설사에는 세월의 풍파속에서 국가의 본태와 국력을 견지하지 못하여 인민의 운명이 도란에 바진 제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지만 대를 이어 위대한 명도자를 모신 우리 공화국은 승승장구의 한길만을 즐기게 되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강국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어 주체조선의 무궁변영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국가건설과 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어 우리 공화국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소한 침체나 좌절을 모르고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영연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기를 법화한 김일성-김정일원리를 채택한것은 우리 공화국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세세년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 거대한 정치적사건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를 띠고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고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념위선의 숭고한 리념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전과 더불어 계속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리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명도사는 어제도 오늘도 활기차게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공격정신과 강철의 탄력,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반만년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신인 사회주의조국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력강화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이 역사적과제를 최단기간내에 수행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을 승리적으로 조직명도하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한푼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투철한 혁명신조를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주체조선의 제일국적인 일심단결이 전백배로 다져지게 하였습니다.

청년증시를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천군만마와 같은 청년대군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인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4대전략로선과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명도로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우리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도록 하시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위협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전략적구상을 펼쳐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결사전을 전투에서 이끄시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장그리 말살하려는 최악의 제재봉쇄속에서 보통의 탄력과 의지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국방력강화의 대업을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전인불발의 의지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실력은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영웅적인 애국헌신으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고생을 겪지 않고 전쟁의 불구름을 영연히 모르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수십년을 앞당겨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체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명도로 이 땅에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었습니다.

새 세기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전반적12년제의 무료교육과 전면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견지명에 의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명도는 전국도처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과학기술전당과 떠명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의 본보기,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출처럼 일떠서게 하였으며 황금밭, 황금산, 황금해의 눈부신 새 역사를 펼쳐였습니다.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며 경제전반이 상승궤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문명창조의 빛나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것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전전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뚜렷이 증시해주고있습니다.

천출위인의 비범특출한 명도따라 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억년 투쟁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리상과 포부, 창조력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대비약적헌신의 불바람속에서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은 급속히 강화되고있습니다.

사상회대의 극악한 압박공세속에서도 몇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건설에서 이룩된 미증유의 거대한 성과들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신화적인 국가건설기적입니다.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은 거세를 품어안는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가장 분명명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희망과 심신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전이 진행된 북남수뇌회담들과 민족단합의 귀중한 성과들은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통이 큰 결단과 강철

의 의지, 비범한 명도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드시 통성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 대대손손 부락을 누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자주의외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중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셨습니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활무쌍한 대외활동에 의하여 전통적인 조종천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화발전되게 되였으며 장구한 세월 힘에하게 대처하여온 조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나가는 세기적인 사변이 이룩되었습니다.

비범한 외교전략으로 공화국의 위상을 만방에 빛내이시고 세계정치 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세계적인 지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김정은영품이 행성을 진감하고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모습에서 참다운 국가건설의 전로를 찾았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의 앞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찬연히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명도자를 모신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사의 돌풍속에서도 전회위부의 기적을 창조하며 강국건설의 대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철리를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오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강대한 우리 조국이 있고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대불변의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무궁토록 빛내어나갈 철석의 의지가 차넘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건국의 아버지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욱 무궁하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세계가 우러르는 걸출한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총직하게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바탕으로 강화하며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6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완수하고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겠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총상을 억세게 비껴 들고 그 어떤 침략세력도 신성한 우리 조국의 명도, 영광, 명예를 0.001mm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창조와 건설의 대적전장마다에서 혁명의 주력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치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무하며 가장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공화국의 시책들을 철저히 집행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명도를 높이 받들며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강국의 광명한 패일을 향하여 집풍같이 노드쳐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백전백승의 명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위력으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드시 세계가 우러르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 공 동 축 하 문 채 택 모 임 진 행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공동축하문채택모임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상,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을



김영남동지가 낭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축하문에서 일흔번째의 년분을 새기는 공화국창건일을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태초의 기치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발견시키는것을 강국건설의 근본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어 주체조선의 무궁민영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하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불굴의 공격정신과 강철의 단력, 불침투야의 애국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단단히 단련시켜주시고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는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루하시였으며 이 땅위에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데 대하여 축하문을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온 겨레를 품어안는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반관개계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략적국면을 안아오시였으며 출중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강국의 광명한 레일을 향하여 일동같이 노력하시나갈 것이라는 데 대하여 축하문을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전체 모임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오늘 우리들은 만민의 다함없는 정성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 오시였으며 존경하는 원수각하의 토속하고 세련된 평도담에 통상과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참가자들은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평양에서 회원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필요인 조지들을 위해주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전인류적인 기금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회원들이

진행한 지난 2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토의결정한 문제들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였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기금의 회원이라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앞으로 기금사업에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의 성세, 불체의 사회주의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존경하는 원수각하의 특출한 정치실력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세계정세를 주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막강한 지도자이시라고 격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뜻을 높이 만들어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을 세계민방에 떨치시는 존경하는 원수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이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세상에는 이렇듯 기금이나 재단들은 많지도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열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기금은 오직 김일성김정일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기금의 회원원 영예를 기금사업의 끝없는 확대발전으로 더욱 빛내어나갈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창당한 앞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참가자일동  
주제 107 (2018) 년 9월 7일 평 양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 각하

적도기네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니게마 브라쓰고각하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뜻을 담은 뜻깊은 오비앙 니게마 브라쓰고각하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평도담에 적도기네민주당과 조선로동당 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가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요로  
2018년 8월 30일 팔 라 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온 선

물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에게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힐랄 알 힐랄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부서에서 전달하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위원장, 몽골조선친선의원단이 선물을,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지나이다 그레차누이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에게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대표단 단장인 울리치미드 플로비야코프 전국리사회 부위원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조선친선의원단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이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몽골조선친선의원단의 회, 일본 지바프선학 교를 지원하는 원민네트워크, 문화, 학술, 시민교류를 촉진하는 일조우호교포네트,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교포위원회, 캄보디아 글로벌경제자유화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 집행국장 코지 마 웨바 류, 전일본라이프기공 회장 전일본 싸과리니, 일본인론인 나리마 슈이세, 일조우호연대 군마현민회의 대표 크노다 기이치, 하라이즈스범인사물유한회사 지역 조정관 로베르트 질라르디노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말이 모서 적어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당총비서들,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본진교씨 엠바누엘 은지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총비서가 꽃바구니와 선물을, 캄보디아 세계각국로동당 총비서, 오세 미경 메리아 도미니카공화국 라이온동 총비서가 선물을 각각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이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에게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김옥화가 꽃바구니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구진환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

구니와 선물이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이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최홍분이 선물을 드리었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 단총부서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로씨야의 단체와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7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김옥화가 꽃바구니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구진환이 선물을 드리었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 단총부서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그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의 우리의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모서 적어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7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 김옥화가 꽃바구니를,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구진환이 선물을 드리었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김일성김정일기금 단총부서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진행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가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구진환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회원총회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위원회 성원들이 명예손님으로 여기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소집된 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모든 조건을 보장해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평도담에 지대한 승리만을 맹목은 조선인민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회원들이 진행한 사업정형이 총회되고 이 특된 성과와 경이들이 홍보되었다.

또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려나가는 사업과 기금사업의 확대발전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총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한편 이날 김일성김정일기금 제2차회원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을 경축하여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주체사상연구조직 부리사장과 일행, 라짐 푸지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대표단, 엘레나 비비

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마르타 마리아 그렐라코를 단장으로 하는 볼스카 파르사와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드미트리 크스넬코 로씨야주체사상연구

회 위원장, 까드키나 다리아 로씨야주체사상연구학회 알마이공화국지부 위원장, 이고리 보이코브 로씨야 다스만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회 위원장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재중동포대표단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신하조직일군대표단, 김영녀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로일군대표단, 피순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대표단, 동주봉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모범공민대표단, 김영희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로일군대표단, 김연주 재중조선

인총연합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동포예술인대표단, 김해봉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둥시조선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에서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맞이하였다.

##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김일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총연합회 대표단과 조봉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새유일면드봉포협의회 대표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과 평양역에서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맞이하였다. 이날 오남규를 단장으로 하는 까자흐스탄고려인총연합회 대표단, 주분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알차트카고려인총연합

회 대표단, 인 함원씨나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나호드카동포대표단, 리 와짐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우수리스크동포대표단, 안 니키야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국가협동체지역기구가 대표단이 왔다.

## 해외연고가족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

해 중국함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신원, 김정숙가족일행, 재중

함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 박길송가족일행들이 7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외국 손님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백두산위인장총국제추진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피리 우즈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데이비드 오그본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아호아 자카리아 헤이콜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랍지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일행, 헤모리 후미히로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분위원회대표단과 케이본드 머그슨 전국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대표단, 피리 원수를 단장으로 하는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아드난 아크피라트를 단장으로 하는 튀르키예친선대표단, 메구 안보씨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친선문화교류협회대표단, 위탈리 페메체브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기구 부패 책임자, 콘스탄틴 도로벤코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대표, 사를레스도예르네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일북부조선친선협회

대표단, 이완 드라슬레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슬로벤스키조선친선협회대표단, 마나 팜마코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안 조제 로제 무익스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조선작가친선대표단, 헨리크 워드크비스트 스웨덴에 《코너》 영화사 제작자, 카를로스 보닐라 제레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에파도르 블리바르주 에제안타시 대표단, 엠마 베슬리 집행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 및 분쟁연구센터대표단, 이라클리스 짜르다리디스 집행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평화리사회대표단, 에리미스 엔 조이스 무장총동맹지세계협력기구 대표, 후우야마 신키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평화, 인권, 환경연대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한편 이날 강까지 경제상무협력유한공사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김일성 통학시친선대표단, 에까 코프까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이 철차로 왔다. \* \* \*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노키 간지 일본국의 참의원 의원과 일행, 반장 서기처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시협회대표단, 소도 신시성 청년연합회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산서청년대표단, 오즈카르 버르셀리 청년전위조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튀르키예친선대표단, 준 고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싱가포르조선조직위원회 대표단, 민첸트 마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 람프 브레델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표가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연구조직 부리사장과 일행,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기구 부패 책임자,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및 선군문화국지부 위원장,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부위원장, 로씨야 다스만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 대표단,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대표단



볼스카 파르사와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튀르키예 청년대표단, 중국 산서청년대표단, 싱가포르여성사회조직리사 대표단,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 평화 및 분쟁연구센터 대표단, 핀란드 조선 협회 대표단, 까자흐스탄고려인총연합회 대표단



중국 김일성 통학시친선 대표단, 독일국가협동체지역기구가 대표단, 로씨야 알차트카고려인총연합회 대표단, 로씨야 나호드카동포대표단, 로씨야 우수리스크동포대표단,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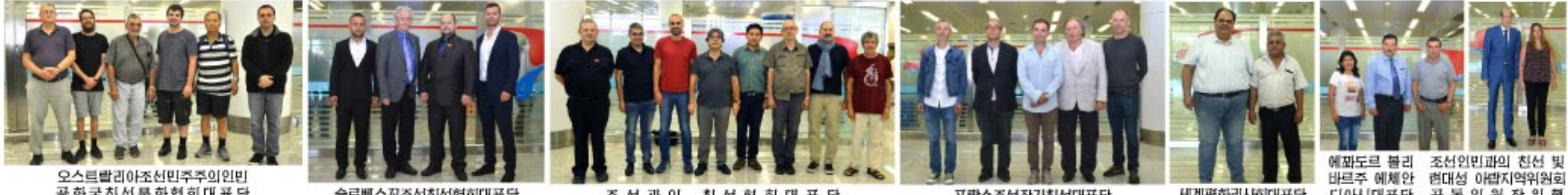
재중집권동포협의회 대표단, 중국 함일혁명투쟁연고자 삼일가족일행, 재중함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일행, 중국 함일혁명투쟁연고자 김정숙가족일행, 재중함일혁명투쟁연고자 박길송가족일행,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모범공민대표단,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산하조직일군대표단



재중동포 예술인 대표단,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로일군대표단,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대표단, 국제고려인총연합회 대표단, 중화민국 자치회 대표단



중국 단둥시조선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 재중동포 전 쟁 로 병 대표단, 일본국외 참의원 의원과 일행,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분위원회 대표단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대표단, 슬로벤스키조선친선협회 대표단, 조선과의 친선 협회 대표단, 프랑스조선작가친선대표단, 세계평화리사회 대표단, 에파도르 블리바르주 에제안타시 대표단,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랍지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일행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대표, 독일북부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무장총동맹지세계협력기구 대표, 일본 평화, 인권, 환경연대 대표단,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대표단, 스웨덴에 《코너》 영화사 제작자, 튀르키예 친선 대표단,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대표단,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표,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의 위원장



#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사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장으로

## 5개년전략기간의 광석생산목표 돌파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만리마사데 첫 선구자집단으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검덕 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에서 5개년전략기간의 광석생산목표를 돌파하여 조국형사에 특기할 만한 위훈을 세웠다.

당 제 7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진입한 첫해에 년간계획을 2, 3배로 넘쳐 수행한 소대에서는 두번째 해인 2017년에 들어와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뜻깊은 태양일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수행 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물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더 높은 광석생산실적으로 당중앙을 경사유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중산부령, 상조부령, 등적부령을 병행히 밀려 지난해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적으로 한걸음 앞을 내딛어 5개년전략기간에 넘쳐서 승리의 기쁨을 휘날렸다.

조국형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 이 빛나는 성과는 당일에 다진 맹세대로 만리마사데 선구자집단의 첫자리를 계속 고수해나가는 소대원들의 불같은 총성과 의의가 남는 자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중앙결사옹위는 조선로동계급의 제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력전투에 대한 당 제 7차대회 결정을 피하는 심장에 받아안은 소대의 전투원들은 해마다 년간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웅부들, 혁신자소대로 자라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총력전에서 앞장서나갈 열의를 안고 신들뜬 바락 조이에게 중산부령에 다량채굴하여 전진속도를 높여 갔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한번 밟아에 많은 땅의 광석을 발굴수 있는 새로운 탐구방법을 창안하고 도입하여 그 어떤 암암조건에서도 광석을 다량채굴하여 전진속도를 높여 갔다.

그러하여 총성의 70일전투, 200일전투기간 광석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1.5배이상 끌어올려 그해 말까지 광석생산을 230%로 수행함으로써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보기 좋게 돌파하였다.

지난해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물은 소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만리마사데 첫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지닌 광부라는 남다른 긍지와 함께 온 나라의 작업단들이 자기들의 전진속도에 보폭을 맞추어 집단적경쟁에 펼쳐나섰다는 자각을 안고 영웅소대 광부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두번째 해에 3년분계획을 완수할 용이 큰 작전을 세웠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일꾼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속에 깊이 안착시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범을 활발히 밀며 기세를 불어주었다.

고경찬영웅소대 소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물을 한자한자 붓으로 써서 막강부계선에 정중히 모시고 그대에서 하루자업실적을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고대법정영을 지휘해나갔다.

연세나 대오의 기수가 되어 소대를 위호한 한걸음 앞을 내딛어 고경찬영웅소대장은 과학기술을 전진과 비약의 보검으로 억세게 들어주고 앞선 채굴방법을 계속 도입해나갔다.

지하 700m 채굴장에서 잔주채굴의 안전성과 속도도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채굴방법을 창안한 고경찬영웅소대장은 소대원들을 불러일으켜 굳건대차를 적인대차로 개조하고 합리적인 채굴방법도 대담하게 받아들여 즉약소비를 20% 줄이면서도 한번 밟아에 최고 2만 5천터의 광석을 생산하였다.

불리한 채굴조건속에서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정병할수 있는 절정적용과 구를 힘있게 열어놓은 소대에서는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전진속도를 높여 나갔다.

소대원들모두가 창의고안명수가 되어 가치있는 기술혁신,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왔다. 이들은 지난해에만도 많은 땅의 옥과 정알을 집약하고 연마시켜, 작업기부속들 등 여러 가지 자재, 부속품들을 재생리화하면서 광석생산의 용출을 줄기차게 올려나갔다.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기간 소대에서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었다. 로력영웅인 재광공 김용식동무는 암석이 굳고 위험한 채굴장을 자진하여 맡아 2명의 제대군인재광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는 재광법과 전광법, 발파법을 배워주며 혁신의 한걸음 앞을 내딛어주었다.

우리 당의 하늘같은 믿음을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보충해의 백날맞잡이로 달려오셨던 또다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의 전투원들의 투쟁기풍은 당의 부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부령운동에 펼쳐나선 온 나라 소대, 작업단들의 경쟁열을 북돋아주고 진군속도에 박차를 더해 주었다.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정신을 받들고 중산부령목표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소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급도 전진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자력자강의 기치를 추켜들고 승전포성을 울려나갔다.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세번째 해이며 봉화국상전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거머승리의 기개를 높이 올릴 기세로 높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소대의 중산부령운동은 거족소대원들이 힘있게 지원해주었다.

지난 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족소대원들은 자기들도 만리마사데 첫 선구자집단의 한성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매일같이 성의껏 미려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찾아와 광부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렇게 영웅소대원들의 중산부령에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병렬한 공격전을 벌이던 것과 소대에서는 5개년전략기간의 광석생산목표를 정병하고 당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올렸다.

이렇게 영웅소대원들의 중산부령에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병렬한 공격전을 벌이던 것과 소대에서는 5개년전략기간의 광석생산목표를 정병하고 당중앙에 승리의 보고를 올렸다.

우리 당의 하늘같은 믿음을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보충해의 백날맞잡이로 달려오셨던 또다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의 전투원들의 투쟁기풍은 당의 부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부령운동에 펼쳐나선 온 나라 소대, 작업단들의 경쟁열을 북돋아주고 진군속도에 박차를 더해 주었다.

본사기자 리혁욱

## 니켈 담지 축매 생산 공정 건설 결속, 시운전 진행

###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는 속에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니켈담지축매생산에 필요한 설비조립과 공정건설을 끝마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열회비날론을 내밀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경공업공정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원료를 보낼수 있게 되었다.

이 성과는 투쟁의 유훈전통,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밀쳐나 봉화국상전 일흔둘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애국충정과 파란만장한 공격정신이 안아낸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화나와 화공업장치를 그리고 조립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로 전변시켜주시고 나라의

화학공업의 주축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광명적업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 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목표를 거듭 표해하시고 나아가길 길을 활히 밝혀주시었으며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시었다.

합성담지축매위원회에서는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2. 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연관단위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어넣어가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놓여있다는 투쟁의 책임감을 안고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건설에 펼쳐나선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면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불붙이는 전투를 벌였다.

연합기업소의 설계집단은 니켈담지축매생산에 대한 공정설계를 두달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었다.

이곳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합성원들의 과학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람구의 낮과 밤을 이어나는 나날에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 건설을 결속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에

회답하며 생산전용개공사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올랐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호소성이 강한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여 대국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켰다.

가소제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강력세일주의기치를 봉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직공의 수리작업반 로동자들은 자재의 힘과 기술로 원심분리기 등 설비제작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이에 뒤질새라 다른 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여러대의 설비제작과 조립을 다그쳤다.

방대한 양에 달하는 구조물제작과 지대정리도 기본적으로 끝났다. 탄탄한 뒤에서는 설비제작에서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산부령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건설을 결속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지금 이들은 새로 일떠세운 생산공정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더 높은 목표전에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공화국상전 일흔둘을 맞으며 새형의 CNC동회면면마반과 CNC종합선식반을 개발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에 개발완성한 새형의 CNC동회면면마반과 CNC종합선식반은 기계제작기술의 최선성파에 기초하여 설계된 현대적인 CNC공작기계이다.

이것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밀린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화국상전 일흔둘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선성파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체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개발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는 속에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 건설을 결속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에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꾼들과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기계공예분야에서 세계의 정평하고 세계를 앞선 나같은 배심을 가지고 CNC동회면면마반과 CNC종합선식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해 첫시작부터

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여 전투장들이 중산부령운동으로 무글무글 활개 하였다.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공작기제조립투자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전투장들에서는 따라와서 기, 따라배우기 운동, 정밀교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집단적경쟁열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모든 생산단위들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 진땀 흘리며 주물물소제와 단조 품소제생산, 부분공가공, 조립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밀려나갔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개발생산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상전 일흔둘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공지의 자부심을 안고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산부령, 상조부령, 등적부령을 과감히 밀면서 생산성파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리 참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 붙었다. 그들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을 추후하려는 애국적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였다.

일꾼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수행하여 주물물소제와 단조 품소제생산을 앞세우면서 부분공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대오의 정진력을 힘있게 발휘하였다.

지대인, 당위원장,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정치사업투대를 돌출하는 생산현장으로 옮기고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밀어주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운동에 펼쳐나선 연합기업소와 대안선선 유리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박봉주동지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정형을 료해하면

## 새형의 CNC공작기계 개발생산

###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공화국상전 일흔둘을 맞으며 새형의 CNC동회면면마반과 CNC종합선식반을 개발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에 개발완성한 새형의 CNC동회면면마반과 CNC종합선식반은 기계제작기술의 최선성파에 기초하여 설계된 현대적인 CNC공작기계이다. 이것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밀린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화국상전 일흔둘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선성파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체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개발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는 속에 2. 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니켈담지축매생산공정 건설을 결속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에

## 산림기자재공장 새로 건설

### 국도환경보호성에서

공화국상전 일흔둘을 맞으며 국도환경보호성에서 산림기자재공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새로 건설된 산림기자재공장은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각종 규격의 수직정반과 나무보가공틀, 해가림망을 비롯하여 많은 산림기자재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참람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적, 전국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당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국도환경보호성의 일꾼들은 현대적인 산림기자재공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성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국도환경보호성에서는 능력이 있는 일꾼들과 건설자

취부를 조직하고 방대한 공사와 제를 계기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성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산림기자재공정건설에 대한 높은 열정과 애도를 가지고 사상으로 달라붙도록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화선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성당일꾼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 공사정형을 료해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도록 일꾼들과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화선경제제정의 열풍이 불어오고 대대별사투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건설장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산림기자재공정건설을 하루빨리 끝내 한마음으로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치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갔다.

현장지휘부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지역경쟁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공화국상전 일흔둘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한 그들은 열의를 안고 산림부족을 비롯한 국도환경보호성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어 공정건설을 본격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왔다.

그러하여 여러대의 생산건물과 사무정사, 전선 및 편의건물, 합숙을 비롯한 보조건물들, 주변공지를 갖추는 공정을 갖춘 산림기자재공장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새로 건설된 산림기자재공장은 여러가지 산림기자재들에 대한 시제품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민중없이 갖추어나가고 있다.

국도환경보호성 일꾼들과 정무원들, 건설자들의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번듯하게 일떠선 산림기자재공장은 온 나라를 수림화, 참람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혁욱】**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시길은 만경대교합침을 뜻은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인명과 세계적주위위업수행에 한창성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한 모진피어있는 사적물들을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길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 박봉주동지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대안선선 유리공장 현지료해

【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대안선선 유리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부령운동에 펼쳐나선 연합기업소와 대안선선 유리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과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박봉주동지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정형을 료해하면

시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강철로 당을 만들어온 전선대들의 투쟁정신으로 뜻깊은 올해의 전투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대안선선 유리공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철강재들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안선선 유리공장을 돌아보면서 박봉주동지는 생산적일양을 일으키고있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을 고무해 주고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합력적으로 꾸리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회들에서는 중산부령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비교세우며 탄탄한 뒤를 따라가는 지대한 작전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박봉주동지 대안선선 유리공장 현지료해

## 볼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 평양 선언에 서명

###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할 외국 손님 도착

볼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이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카자》에 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전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볼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 대표단도 도착하였다.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사 대표단, 러시아 기초연구기금대표단, 로씨야 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과학과 세계문제에 관한 과외위원회 리사일행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단 단장인 올라지미르 플로바주 전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인 당을 대표하여 7일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제11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에 참가할 외국 손님 도착에 관한 과외위원회 리사일행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국제체육기차련맹대표단 도착 메트로 위오비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체육기차련맹대표단이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체육기차련맹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인 체육부상 원금우동지가 맞이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김일성경기장에서 9일(일요일) 공화국상전기념 녀자축구 경진경기가 진행된다. 장년선수대회 여러 종류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벌어지게 된다. 9일부터 15일까지 남포체육관에서 유술 남, 너경기가,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제정기차련맹에서 바드민턴 남, 너경기가, 15일부터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수영 남, 너경기가 각각 시작된다. 청춘거리 학구경기관에서 7일에 시작된 탁구 남, 너경기가 14일에 끝나게 되며 남포체육관에서 11일부터 시작될 배드민턴 남, 너경기는 15일에 결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체육기차련맹대표단 도착



